

한낮이 기운 8월달 햇빛이 철길 위에서 지글지글 끓는다. 트인 지형이다. 철길은 아득한 데서 와서 아득한 곳으로 달려간다. 철길에 나란히 국도가 달리고 있다. 국도는 잘 포장되어 있는 나무랄 데 없는 길이다. 윤이 흐르는 기름진 풀탄 바닥은 폭이 넓고, 고른 것이 철길보다 더 당당하다. 도로를 따라가면서 언저리에 모두 미군부대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다.

햇빛에 이끌거릴 뿐 철길은 공허하다. 도로 역시 왕래가 뜸해진 그런 째이다.

도로의 저쪽 끝에 차량이 한 대 나타난다. 차량은 평탄한 길을 미끄러지듯이 점점 가까이 달려온다. 민간 버스다. 버스에 탄 손님은 많지 않았다. 주말도 아니고 해서, 시간도 어중간해서 그럴 것이다. 손님은 모두 여섯이다. 누르무레한 노타이 셔츠를 입고 유행이 지난 푸르죽죽한 더블 양복 옷저고리를 의자의 팔걸이에 걸쳐놓은 선 실존 된, 미군 주둔지역의 뒷구멍 물건장사

같이 보이는 남자. 똑같이 흰 모시 두루마기에 빛이 바랜 중절 모를 쓴 시골 사람이 둘. 두 사람 다 모자테에 버스표를 꽂고 있다. 그리고 부스스한 머리에 여름 셔츠를 입고 있는 시골청년이 둘. 맨 뒷자리에 얼굴이 하얀 청년이 대학생들이 쓰는 손가방을 무릎에 얹고 창으로 줄곧 철길을 내다보며 간다.

검문소에 이른다. 헌병이 기웃해 보고는 물러가고 경관이 올라온다. 더블 양복을 입은 남자의 신분증을 본다.

「직업은?」

「장사야요」

「무슨 장사니까?」

「뭐, 소소한 장사죠」

두루마기 한 쌍은 그대로 지나친다. 나란히 앉은 청년 두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 그들이 건넌 종이를 받아보면서 물었다.

「신체검사를 받고 오나?」

「네」

두 사람이 시큰둥하게 대답한다. 신분에 가장 자신이 있어 보인다.

맨 뒷자리에 앉은 청년에게로 온다. 증명서를 받아본다.

「학생이요?」

「네, 아나……」

그는 얼굴을 붉힌다.

「그건 학생 때 낸 겁니다」

「지금은?」

「교원입니다」

「무슨 일로 잡니까?」

「부임하는 길입니다」

「무슨 중명이……」

청년은 가방 속에서 종이를 내보인다.

「국민학교 교사군?」

「네」

청년은 조금 화난 투로 대답한다. 경관은 내려갔다. 손으로 가리는 신호를 한다. 운전사는 다정스레 손을 흔들며 보이고는 발차시켰다. 젊은 교사는 또 철로를 내다본다. 햇빛에 이끌거리는 공허한 철로가 말없이 자꾸 따라온다.

다리 어귀에서 미군 수송차량대를 만난다. 앞장서 오는 지프차에서 비켜서라고 손짓을 한다. 이 길에서는 원념행차다. 운전사는 투덜거리면서 자기 차를 한쪽으로 비켜 세운다. <폭발물 위험>이라고 붉은 글씨로 쓰고 지상스톱게 해골의 탈바가지까지 그려넣은 판패기를 저마다 붙인 트럭들이 잇달아 지나간다. 모두 두 가리개천을 덮었다. 반들반들하게 손질이 잘된 차체에 운전대에는 멀끔한 병사가 돌썩 타고 있다. 군모가 아니고 운동모자를 쓴 친구도 있다. 짐동이기도 있다. 짐동이 병사가 이쪽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실없이 울러댄다. 그리고 흰 이빨을 씌익 드러낸다. 신체검사를 받고 오는 길이라는 청년들이 목을 움츠리며 키 웃는다.

차량들은 노란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다. 같은 모양의 같은 가리개에, 같은 <폭발물 위험>에, 같은 노란 헤드라이트에, 같은 빠르기로, 같은 병사들을 태우고 차량들은 한없이 지나간다. 언제 끝날 성싶지 않다. 길의 아득한 저쪽, 건널목이 보이는 산모퉁이에서 차량들은 꾸역꾸역 자꾸 밀려나오고 그것은 이곳까지 딱딱이 이어져 있다. 차량들의 전진은 무한궤도의 되풀이처럼

그저 자꾸 제 마디가 또 돌아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킬 뿐 죽어나는 것 같지 않다. 행차를 비켜선 버스의 뒤에는 어느새 줄줄이 차가 밀려 섰다. 이 대열은 모양이 갖가지다. 민간차량, 군용차량, 트럭, 지프, 스리쿼터 등등이다. 그러나 표정만은 한결같다. 조바심들이 나서 근질근질하는 역정을 누르면서 행차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차량대의 맨 끝 차가 지나갔다. 버스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교사는 다시 철길 쪽으로 눈을 돌린다. 퇴약병에 이끌거리는 철길은 그저 공허하다.

버스는 탄탄대로를 무뎠하게 달린다. 한참 가다가 버스 속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몸을 내밀고 목을 빼며 차가 가고 있는 앞쪽을 살핀다. 길 한가운데로 울긋불긋한 행렬이 천천히 다가오면서 화려한 꾸성(哭聲)이 들려온다. 버스는 또 아까처럼 길 옆으로 비켜섰다. 손님들은 모두 한쪽으로 몰려 창으로 목을 내밀고 구경한다.

깃발이 술한, 구식 장래행렬인데, 소복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친 것은 식대로지만, 상두꾼이 모두 여자뿐인데다가 영구를 맨 여자나 따라오는 여자들이 모두 시골사람들이 아니다.

운전대 옆 비상구에 한쪽 발을 올려놓고, 팔꿈치를 핸들에 걸친 팔의 손바닥으로 턱을 괴고 심드렁하게 바라보고 있던 운전사가, 신기하지도 않다는 투로 불이를 한다.

「양책시 장례예요. 조합원들이 매구 나가지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깃발에는 저마다 다른 글귀인데 이런 것도 있다. <언니 참 가요>, <수잔 너만 가고 나는 남고>.

행렬은 당겼다놓았다 하면서 꿈뻑이 걸음을 치고, 북망산천이 하고 텃두리 한 꼭지가 끝나면 어이어이 하고 나왔던 영구가 또

주춤주춤 물러서고 몸부림치곤 한다. 언제 지날지 한정 없을 것 같다.

행렬의 앞뒤에는 밀린 차량들이 주르르 들어서서 구경꾼이 되고 있다. 서로 마주본, 방향을 달리한 차량들의 사이에 남겨진 공간에서 장쾌행렬이 노타거리고 있는데, 행렬은 조금 이쪽으로 더 나아가서 왼쪽으로 구도를 벗어나는 셋길로 빠질 모양이다. 그 사이 차량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장쾌행렬은 앞뒤로만 주춤추는 것은 아니다. 좌우로도 비틀비틀하면서 도무지 한번 내디뎠다가는 두세 걸음을 물러나곤 하는데 행렬이——앞으로 나가려는 행렬이 아니라 길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광대놀음을 펼쳐놓은 형국이다. 햇빛은 창창하게 쏟아보는데 남빛 비단 것 발이 번뜩번뜩 빛나면서 넘어졌다 곧게 섰다 한다. 행렬은 구경꾼들에게는 아랑곳없이 마냥 누장을 부릴 모양이다. 아까보다 자리를 얼마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바람 한점 없다. 덩다. 겨우 행렬을 스쳐 지난다. 여자 하나가 냇두리를 하면서 버스의 불기작을 뒷손으로 찰씩 치고 간다. 버스는 움찔하고 다시 움직인다. 국민화교 교사는 한참 만에 뒤를 돌아보았다. 장쾌행렬은 철로와 도로가 마주친 건널목을 넘어가고 있다. 건너간 저편이 꼭 내려간 곳이어서 행렬은 사라졌다. 뒤에는 공허한 철로가 이글거리며 모습을 드러낸다.

얼마 안 가서 버스는 작은 마을에 닿았다. 이 구도의 연변에 가다가다 푸슬히 늘어진 택시스 마을이다. 거리의 양편에는 〈아리조나 상회〉〈윌리 지메 상점〉〈하니 케츠〉〈핑크 하트〉이런 영문간판이 붙은 가게들이 차마를 맞대고 늘어서 있다. 천막지르 지붕을 가진 바리크 구멍가게들인데 속에 퍼놓은 물건들은

지루한 구도를 지루한 눈과 발, 이신과 그 기슭을 달리는 철로만 보며 오던 눈에는 당돌하도록 기뻐진다. 어느 가게에서 젊은 여자가 한 팔로 흑인 병사의 허리를 뒤로 끌어안고 다른 팔 주먹으로 그의 등을 때리고 있다. 병사는 두 손으로 뒤통수를 감싸고 맞고 있다. 미군 상대의 가게들이다. 그 가게들 뒤에 미친가지로 바리크 집들이 울망줄망 모여 있는 작은 거리다. 거리는 버스가 단숨에 달리면 끝날 길이밖에 안 된다. 여기서 손님 넷을 태우고 버스는 다시 떠난다.

버스 인이 환해지고 활기를 띤다. 한 사람은 여자인데, 분홍색 블라우스에 분홍 구두를 신은, 한눈에 이 거리에 사는 그런 여자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외국계로 보이는 여행 트렁크를 가지고 올랐다. 나머지 셋은 군용작업복을 입은 술취한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머리를 커밀까지 기르고 그것을 기쁨으로 짝 밀어붙이고 있다. 조금 있더니 그 중 하나가 분홍색 블라우스를 향해서 말했다.

「간편 팬츠인데? 너 언제 왔어?」

사실이였다. 질생긴 얼굴이였다. 여자의 귀에 달린 은색 귀걸이가 떨리는 듯했으나 때우는 없었다.

「귀구녕에 말뚝을 박았나 온, 말이 말 같지 않아 영?」

한패의 다른 청년이 얼른 받았다.

「말뚝이야 판 테 박지?」

순남들이 맥없이 로드르르 웃었다. 운전사의 어깨도 움찔했다. 여자는 매섭게 청년들을 노려본다. 청년들과 같은 줄에 앉은 탓으로 젊은 교사는 여자의 눈길이 자기를 쏘는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다. 사실 그는 웃지 않은 단 한 사람이었는데.

「어? 봐? 엽전도 생각 있어?」

여자는 다시 고개를 꺾 돌려 앞을 바라본다.

「아 팔값 하지 말어. XXXXX야」

손님들은 또 맥없이 호드르르 웃었다. 교사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몸을 일으키자 하며 무엇인가 입을 뿔 듯하다가 주저앉았다. 목을 꼬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 옆얼굴이 아름답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입매가 참하다고 생각하였다. 청년들은 실새 없이 음란한 상소리를 지껄여댔다. 그때마다 더불 양복은 허어, 하고 웃었다. 흰 모시두루마기들은 소리는 없이 변죽벌죽했다. 신경질 청년들은 킬킬킬 웃었다. 교사는 붉으락푸르락하면서 그때마다 여자를 훑쳐봤다. 여자는 여전히 목을 끈 채 이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자기가 웃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릴 길이 없었다. 버스는 지루한 길을 지루하게 달리고 취한들의 음담은 그칠 줄 모른다. 한참 조용한가 했더니 한 사람이 또 무어라고 했다. 손님들은 또 호드르르 맥없이 웃었다.

여자는 발딱 일어섰다.

「내려줘요!」

운전사가 돌아본다. 다시 앞을 보면서, 느릿하게 대꾸한다.

「한길인데……」

앞뒤로 구도만 창창한 허허벌판이다.

「괜찮아요, 내려줘요!」

운전사는 입을 비죽하다니 발동은 끄지 않고 부릉부릉 건 채 로 에라, 하고 차를 세웠다. 여자는 트렁크를 들고 문간으로 다가선다.

「어? 내려?」

「길에서 XX 팔아?」

「이따 갈게. XX 썼고 기다려라구」

취한들은 끝까지 음담이다. 여자는 못 들은 체 승강구를 내리더니 끝단에서 꺾 돌아섰다. 쟁하는 목소리가 날아왔다.

「개 같은 새끼들이! 너희들 다!」

쏘아붙이고 그녀가 훌쩍 뛰어내린 것파 차가 달리기 시작한 것파는, 아마 나중 것이 조금 먼저였다.

개들을 실은 버스는, 어쩔까 망설이기나 하는 듯이 주춤주춤하다가 그대로 달린다. 실러가면서 창문에 앞발을 걸고 뒤에 대고 쫓아대는 개들과 나머지 개들을 싣고, 개가 모는 버스는 불안 체인 개처럼 구도를 달려갔다. 멀리 사라졌다.

왕래가 없는 허허한 구도에 조그만 분홍색 인형 같은, 그녀만 남는다. 버스가 사라진 쪽을 그녀는 멍하니 바라본다. 한참 만에 그녀는 오던 쪽으로 돌아선다. 그쪽에서 하얀 구도와 이글거리 는 철로——두 가닥 허허한 길이 저만치서 건널목을 이루고 마주쳤다. 다시 갈라져 아득히 뻗어 있다. 그 건널목 저쪽 어귀에, SALEM 담배의 거대한 모형이 빌딩처럼 우뚝 솟아 있다. 높은 반침대 위에, 약간 삐딱하게 었혀진 녹색의 거대한 담뱃갑 위쪽지에서, 연동만한 담배 한 개비가 삼분의 일만큼 나와서 포신(筒身)처럼 하늘을 거누고 있다. 그녀는 멍하니 그 하얀 포신을 바라본다. 농지거리를 하는 미군형사들을 실은 트럭이 몇 대 지나가고 버스는 안 온다. 그녀의 얼굴은 초조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거대한 SALEM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다. 반 시간쯤, 피야벌 속에 그렇게 서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트렁크를 집어든다. 그리고는 방금 자기가 타고온 방향——SALEM 쪽으로 걸어간다.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타박타박 걸어간다. 이윽고 SALEM이 도로에 드리운 그늘 속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동뒤에서 오는 차량의 엔진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돌아본다. 버스가. 그녀는 그들 속에 트렁크를 내려놓는다. 버스가 그녀 앞에 멎는다. 그녀는 트렁크를 들고 버스에 오른다. 문이 닫히고 버스는 다시 달린다. 멀리 사라져간다. 햇볕에 이끌거리는 기쁨진 도로 속에 녹아들어가 버렸다.

들판에는 이제 홀로 되어 그저 기쁨지게 허허한 도로와 이를 거리는 허허한 철로——두 줄기의 말없는 여행지만 남는다. 그들은 묵묵히 서로의 이득한 길을 간다. 거대한 녹색의 SALEM 이, 멀어져 가는 그들을 묵묵히 보고 있다.

도시의 변두리, 교외의 초입에 있는, 철로와 구도가 마주치는 건널목 이쪽에서 소년은 기다리고 있다. 땅거미가 지는 8월의 저녁 속에서. 해가 중천에 있을 때부터——그의 집보다 두 배쯤 큰 〈비타·엠〉의 양철간판의 그늘 속에서. 많은 버스가 지나 갔다.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았다.

구도는 차츰 어두워오고, 철로는 뒤엎거리는 햇빛 속에서 소년의 마지막 희망처럼 둔탁한 금색으로 빛나고 있다. 엔진 소리가 들려온다. 소년은 한 발 나간다. 이윽고 헤드라이트를 켜 버스가 건널목 저편에 나타난다. 넘어온다. 그때로 지나간다. 소년은 다시 조그리고 앉는다. 이제 철로는 빛나지 않는다.

오르릉오르릉거리며 열차가 달려온다. 소년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선다. 까닭없이 화를 내면서 기관차가 지나가고, 그 뒤를 개척가 따라온다. 십자(+)의 표를 열구리에 그려 붙였다. 물 맑힌 환한 창에, 코쟁이 남자와와 하얀 웃을 입은 코쟁이 여자들의 얼굴이 비친다. 하얀 모자를 쓴 여자가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밖의 어둠을——소년을 응시하며 지나간다. 개척 다음에는, 밀판만 있고 지붕과 벽이 없는 차량이 매달려 지나간다. 그 위에 지

친 듯이 포신이 무겁게 들이쳐진 커다란 대포가 부상형처럼 뻗어서 실려간다. 봉우리처럼 웅크린 소년의 집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캐터필러 없는 탱크가 실려간다. 비취가 빠지고 머리가 부서진 지 엠 시가 주저앉아서 얽혀간다. 말없는, 상하고 지친 여행자들이다. 한없이 긴 기다리. 한결같이 부서진 트렁크와 탱크와 대포가 한없이 지나간다. 소년은 무서워진다. 이 기차가 한없이 막고 있으면 버스는 건널목을 넘지 못할 테니까. 저쪽에, 지금이라도 그가 기다리는 사람을 태운 버스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다. 언제가 되더라도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고, 소년은 조그리고 앉는다. 이득한, 오랜 시간을 소년은 꾸준히 참았다. 기차에 실린 여행자들이 겨우 다 지나갔다. 벌떡 일어서며 소년은 건너다보았다. 없다——길이 없다. 철로도 없다.

철로와 도로도 밤을 타고 가버린 것이다.

남은 것은 소년의 동공 속으로 머물처럼 넘어 들어가는 어둠과, 그 어둠 속에 갇이 침몰해 가는 소년의 마음뿐이다. 누나는 왜 안 올까?

## 웃음소리

---

### 오늘의 작가 총서 5

1판 1쇄 적음 · 1995년 12월 28일  
1판 1쇄 펴냄 · 1996년 1월 3일

지은이——최인훈  
펴낸이——朴孟浩  
펴낸곳——(주)민음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5층  
대표전화 515-2000 / 팩시밀리 515-2007  
출판등록 1991. 12. 20. (제16-490호)

© 최인훈, 1995. Printed in Seoul, Korea

값 8,000원

ISBN 89-374-0405-2 04810  
ISBN 89-374-0400-1 (세트)

\* 지은이와 함의하여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